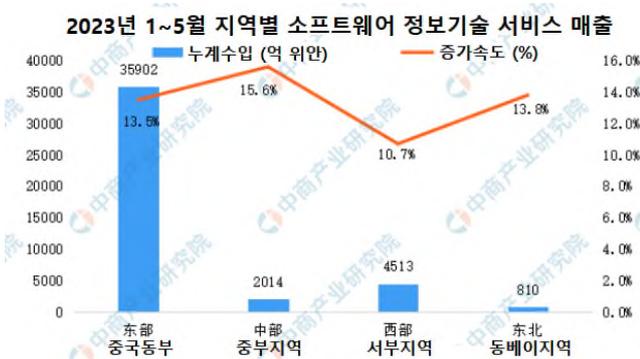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5월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1~5월 중국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한 4조 3,238억 위안(한화 약 782조 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
-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4,922억 위안(약 89조 원)이며, 소프트웨어 수출은 3.7% 감소한 189억 달러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
- 정보기술(IT) 서비스 매출은 14.2% 증가한 2조 8,456억 위안(약 515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65.8%를 차지, 이 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은 16.9% 증가한 4,366억 위안(약 79조 원), 집적회로 설계 매출은 5.2% 증가한 1,052억 위안(약 19조 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서비스 매출은 1.0% 감소한 3,377억 위안(약 61조 원)임
-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11.4% 증가한 1조 410억 위안(약 188조 원), 이 중 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은 13.1% 증가한 1,012억 위안(약 18조 원),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은 9.2% 증가한 635억 위안(약 11조 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매출은 12.9% 증가한 3,738억 위안(약 67조 원)임



자료 : 중국공신부(工信部)자료 토대로 중상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정리 (www.sohu.com/a/692088681_350221)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s://www.chinaweb.com/cj/2023/06-25/10031154.shtml>

2 中, 1~5월 항구 화물 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5월 항구 화물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67.5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4.8% 증가한 1.2억 표준컨테이너로 집계
- 수상운송 건설 투자는 30.3% 증가한 734억 위안(한화 약 13조 원)에 달했으며 고정자산 투자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중국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구의 화물 운송이 원활하다고 하며, 현재 연해지역 10개 성(省), 장강 연해지역 7개 성(省)은 항구그룹(港口集团) 건설을 추진 중으로 초보 단계의 항구 자원이용의 집약화, 운영의 일체화, 고효율 서비스를 실현했다고 발표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7/01/content_26001606.htm

3 中, 신에너지차 누적 생산량 2,000만 대 돌파

- 중국의 2,000번째 신에너지차가 광치(广汽) 아이온(Aion, 埃安)에서 생산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기술진보 및 스마트제조 및 대규모 시장우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중국이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나타냄
-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8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유지했고 올해 1~5월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5.1%, 46.8% 증가한 300.5만 대, 294만 대를 기록
- 신에너지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1~5월 중국산 브랜드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53.1%로 상승했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4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은 1995년부터 신에너지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후 27년 만에 1,000만 대의 생산량을 돌파했으며, 1,000만 대 달성기록 이후 1년 반 만에 생산량 2,000만 대 달성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307/04/t20230704_38615539.shtml

4 中, 위안화 평가절하로 달러대 위안화 환율 급등

- 6월 26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위안(한화 약 1,301원)을 웃돌았는데 이는 중국 수출 업체의 이윤 제고 및 주문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이우어우츠(欧弛) 수출입유한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40%에 달했는데, 환율 변동으로 수출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해졌으나 환율은 변동은 주문금액의 3~5%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함. 또한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가성비 높은 제품을 발굴하게 된 데 있다고 함
- ‘중국 아동복의 도시’로 불리는 저장성 후저우(湖州)시 즈리진(织里镇)의 경우 올해 1~5월 전체 수출은 143.6% 증가한 86억 위안(약 1.5조 원)이고, 이 중 아동복 수출이 8억 위안(약 1,441억 원)에 달함. 6월 수출은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환율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산둥예도(锐图)레이저테크 유한회사 관계자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고객 주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가량 증가했다고 밝힘
- 중국외환투자연구원 경제학자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추세는 변함이 없고 환율 파동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분석함
-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5월 교역액은 4.7% 증가한 17조 위안(약 3,061조 원)이며, 수출은 8.1% 증가한 10조 위안(약 1,800조 원), 수입은 0.5% 증가한 7조 위안(약 1,261조 원)임

자료원 : 시나닷컴

<https://news.sina.com.cn/minsheng/2023-06-27/doc-imyysnsz3806639.shtml>

5 테슬라, 중국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점차 하락세

- 테슬라의 중국내 판매량이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나 비야디(BYD, 比亚迪) 등 중국산 브랜드의 부상으로 시장점유율은 하락세임
- 짜오인(招银)국제증권은 올해 2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1분기 대비 13.0% 증가한 15.5만 대에 달하나 시장점유율은 16.0%에서 13.7%로 하락하고 비야디(BYD, 比亚迪)와 아이온(Aion, 埃安)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분석함

- 상하이시 컨설팅회사 Automotive Foresight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역별 수백 개 도시로 판매망을 확장해야 하는데 테슬라의 직판 방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비야디는 이러한 중소 도시들에 경소상을 보유하여 우위를 확보
- 최근 몇 개월 니오(Nio)와 Xpeng(小鹏) 등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제조기업은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으나 비야디는 30만 위안(약 4.15만 달러) 이하 가격대의 차량을 출시하여 자체 우위를 공고히 함
- 비야디는 해외에서도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으며, 1~5월 싱가포르에서 비야디 판매량이 테슬라를 추월했고 올해 5월 호주에서 비야디 Atto3의 판매량이 테슬라 Model3의 판매량을 상회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auto.ce.cn/auto/gundong/202306/29/t20230629_38609773.shtml

6 中, 2025년 커피시장 규모 1조 위안 돌파 예상

- 중국 관영매체 CCTV재경 보도에 따르면 올해 4~6월 공동구매 플랫폼의 커피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250% 규모로 급증함. 아이메이(艾媒)컨설팅은 향후 수년간 중국의 커피시장은 25~3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2025년 시장규모가 1조 위안(한화 약 18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커피 소비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투자도 증가세임. 증권일보에 따르면 2022년 요식업 투자가 100건 이상인데 이 중 25% 이상이 커피사업 투자로 집계됨. 올해는 소비 회복세와 지방정부의 커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자들의 투자수요도 따라서 증가
- 한 예로, 커피 스마트단말 설비 개발업체인 쇼카(小咖) 커피는 6월 중순에 4.5억 위안(약 811억 원) 규모의 B라운드 투자를 유치. 당사는 베이징시, 청두시, 광저우시 등지에 커피숍 500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 매장은 1,000개, 단일 점포 당 일간 판매량은 200잔, 자동 커피기 총 3만 대를 설치. 이 외 유신(由心), 싱마오(幸猫), 레이리(雷力), 하이관(嗨罐), 러차(热茶), 부루숭(布鲁熊), 싱인(星茵) 등의 커피 브랜드 모두 투자를 받음
- 상장회사들도 앞다투어 △유명 커피 브랜드 △커피 포장 설계 △스마트 커피기 생산 △커피 생산시설 확장 등에 투자하는 추세. 자허(佳禾) 식품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독일, 브라질, 프랑스 등 국가 젊은이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49잔에 달하는데 중국은 9잔에 불과하지만 신속한 성장세로 소비자들이 커피콩, 커피 분말, 커피 농축액, 즉석(RTD) 커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기업정보 플랫폼 텐엔차(天眼查)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커피 분야 종사기업은 18만 개사로 올해에만 1만 4,800개사가 신규 설립되어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율을 보임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c/sp/info/202307/03/t20230703_38613922.shtml

7 中, 캠핑용품·웨이루냉차(围炉冰茶) 등 ‘분위기 업그레이드’ 제품 인기

- 최근 소비자들이 점차 자아, 내심 세계 등을 중요시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정서적 가치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무드등, 방향제품, 스피커 등의 ‘분위기 업그레이드’ 제품 인기가 빠르게 상승했고 ‘2023 소매업 소비 트렌드 백서’에도 ‘분위기 업그레이드’ 소비를 소개
- 캠핑의 인기로 자동차, 가구·가전, 식품 및 야외용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국 ‘캠핑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2,483억 위안(약 45조 원)에 이를 전망
- 베이징시 시청(西城)구의 모 커피숍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웨이루냉차(围炉冰茶, ‘웨이루’란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 함께 이야기하다는 의미) 세트가 인기라고 전함. 냉차 세트에는 냉차와 케익, 과일, 견과류 등이 포함되며, 드라이아이스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손님들이 사진을 촬영하며 즐긴다고 덧붙였음



▲그릴에 차를 끓이며 감, 고구마, 밤 등 제철 음식을 함께 굽는 문화인 ‘웨이루주차(围炉煮茶)’(左)와, 최근 새로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웨이루냉차(围炉冰茶)’(右)

자료원 : 공인일보

http://www.ce.cn/xwzx/gnsz/gdxw/202307/03/t20230703_38614295.shtml

8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꾸준한 증가세

- 올해 상반기 외자기업의 중국내 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건설 투자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임
 - 지난 5월 BMW의 6세대 동력배터리 프로젝트가 선양시에서 건설을 가동하였고, 폭스바겐은 10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를 투자해 허페이시에 완성차 연구개발 및 부품 개발 및 구매에 종사하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글로벌 최대 자동차기술 공급업체인 보쉬그룹도 올해 초에 쑤저우시에 보쉬 신에너지차 핵심부품 및 무인운전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
 - 코닝(康宁) 디스플레이는 올해에 충칭시 공장을 확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허페이시 정부와는 자동차유리 생산 3기 프로젝트 건설 계약을 체결함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첨단기술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이 30.8% 증가했고,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에 따르면 47.6%의 외자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신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올해 1~5월 상하이시에만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11개가 신설되었고 외자기업은 베이징시, 상하이시, 웨강아오대만구 등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로 집중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타 지역에도 연구개발센터가 연이어 설립됨

자료원 : 중국전자신문

<https://baijiahao.baidu.com/s?id=1770375180339574725&wfr=spider&for=pc>